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유은영^{1*}, 윤치근², 양유정³

¹광주보건대학 보건행정과, ²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³초당대학교 의약관리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in Some Regions

Eun-Yeong Yu^{1*}, Chi-Keun Yoon² and Yu-Jeong Yang³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Medicine Management, Chod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G시에 소재한 2개 종합대학, 3개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일반적 특성과 인지적 자아, 평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상태, 입학동기, 학과 만족도, 교우관계, 건강상태에서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인지적 자아, 평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 간에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인지적 자아, 평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은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신체화, 불안, 편집증, 정신증에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을 완화할 수 있는 정규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data collected is to be utilized to promote effect method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that will improve th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re were a total of 46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from 2 universities and 3 community colleges between October 2nd and December 2nd 2010.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ptual self, the evaluative self, and self-esteem.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 the year of entering college, satisfaction with your department, relationship with fellow classmates, and health status with regards to low mental health. Third, there was a partial correlation between perceptual self, evaluative self, and self-esteem. Perceptual self, evaluative self, and self-esteem were inversely related to obsessive compulsiveness, hostility, interpersonal sensitivity, physical, anxiety, delusional disorder, and psychosi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and easing mental health wit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formal education program. It is also recognized that follow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understand additional effects.

Key Words : Self-esteem, Mental health, College students

1. 서론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및 전문화 됨에 따라 외로

움, 소외감 및 대인관계 단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과적 사회문제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정신건강의 문제는 해결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

*교신저자 : 유은영(yuy368@ghc.ac.kr)

접수일 11년 10월 31일 수정일 (1차 11년 12월 14일, 2차 11년 12월 23일, 3차 11년 12월 30일) 게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제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정체성의식이 형성되는 주 시기이며, 정신과 신체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역동기로서 정신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균형이 심한 시기이다[2].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면 많은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 정신건강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3]. 특히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장, 발달을 통해 얻어진 자신에 대한 이해, 사회적인 위치, 장래직업, 인생의 목적 등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듯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 전환기로서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이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급격한 신체변화 및 성적성숙,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identity) 형성, 가치관 정립, 감정과 충동의 조절 등 여러 적응문제에 실패하게 되면 정신건강이 더욱 위협받게 된다[4]. 또한 이시기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원만한 학습수행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가정 및 사회생활 적응에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개인의 환경과 의미 있는 타인들, 즉 가족, 동료, 친구들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5]. 자아존중감은 인지적요소와 평가적요소로 구분되는 데 인지적자아는 주로 개인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관한 것이며, 평가적 자아는 자기자신을 평가적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자아는 인간의 행동종류를 설명하고 평가적자아는 인간행동의 질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6].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지각과 중심을 의미하는 평가적자아와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는 인지적자아가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7].

Troll와 Skaff[8]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는데, 정신건강이란 진정한 의미의 자아존중감, 즉 내가 존귀하다는 자각이므로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정신건강이 나쁜 것이고 결국 신경증, 정신병이 된다고 하였다. Cheng과 Furnham[9]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분명하지 않지만, 행복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사람보다 정신건강의 심리적 징후가 8배나 된다고 하였다[10]. 즉,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11], 삶의 만족, 행복, 의욕, 긍정적인 감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2]. 따라서 정신적 건강함과 자아정체감(identity) 확립은 대학생 시기의 궁극적인 과제이며, 이 시기의 성취에 따라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비행청소년,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3,13-16].이렇듯, 정신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生的 평가적자아와 인지적자아 모두 포함하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G시에 소재한 2개 종합대학교, 3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고 설문응답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570명에게 배부하여 543부를 회수하였으나 그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4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도구들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데, 최정훈[17]이 개발한 인지적 자아에 관한 10문항과 Rosenberg[18]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배재현이 번안한 것을 수

정보완한 평가적 자아 10문항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8문항, 인지적 자아 10문항, 평가적자아 10문항, 정신건강 47문항으로 총 75문항으로 하였다.

평가적자아와 인지적자아 척도의 채점은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인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자아와 평가적자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711이었다.

정신건강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등[19]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 표준화한 간이정신검사지(Symptom Checklist-90-Revision)를 이훈구가 [20]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4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강박증, 적대감, 공포증, 대인예민,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증상마다 대상자는 당일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61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과 요인분석은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2.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종합대학 2개와 전문대학 3개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가 모든 대학생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57.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2학년 36.8%, 3학년 6.2%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23.9%, 여성이 76.1%로 여성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267	57.1
	2학년	172	36.8
	3학년	29	6.2
성별	남성	112	23.9
	여성	356	76.1
경제상태	상	9	1.9
	중	382	81.6
	하	77	16.5
학과 성적	상	55	11.8
	중	330	70.5
	하	83	17.7
입학동기	적성과 흥미	194	41.5
	주위 사람 권유	89	19.0
	취업전망	185	39.5
학과만족도	불만	120	25.6
	보통	168	35.9
	만족	180	38.5
교우관계	원만하지 못함	37	7.9
	보통	125	26.7
	원만함	306	65.4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74	15.8
	보통	146	31.2
	건강함	248	53.0

경제상태는 중층 81.6%, 하층 16.5%, 상층 1.9%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 70.5%, 하위 17.7%, 상위 11.8%로 나타났다. 입학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전망 39.5%, 주위사람의 권유가 19.0%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는 만족 38.5%, 보통 35.9%, 불만족 25.6%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원만함 65.4%, 보통 26.7%, 원만하지 못함 7.9% 양상을 보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53.0%, 보통이 31.2%, 건강하지 못함이 15.8%로 나타났다[표 1].

3.2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연구 대상자의 평가적 자아는 평균3.96점이고, 인지적 자아의 평균은 3.94점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평가적 자아는 2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적 자아에서는 3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학년별로 비슷한 분포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와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나을수록 평가적 자아, 인지적자아 및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성적은 상일 경우 평가적자아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동기는 취업전망이 평가적 자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과만족도와 교우관계는 평가적자아, 인지적자아 및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비슷한 점수 분포이며,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평가적 자아와 자아존중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

3.3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영역간의 관계는 표 3-1, 표 3-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평균 1.37 점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정신건강 9개 하위 영역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공포와 우울증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상태는 경제상태가 상일 경우 적대감, 대인예민,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상태가 중일 경우 공포, 신체화, 우울증, 정신건강 총점에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강박증은 경제상태가 상 일때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적에서는 성적이 하인 경우가 강박증, 적대감, 대

인예민, 신체화, 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신건강 총점에서 정신건강점수가 성적이 상, 중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우울증과 공포는 성적인 하인 경우가 정신건강 총점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성적이 상, 중인 경우는 비슷한 정신건강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에서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위의 권유는 공포, 우울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인 경우가 정신건강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신체화와 정신건강 총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교우관계에서는 원만한 교우관계가 모든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신체화, 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신건강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공포와 우울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가 건강한 경우가 모든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공포, 우울증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특성	변수	평가적 자아 (M±SD)	t or F	인지적 자아 (M±SD)	t or F	자아존중감 (M±SD)	t or F
학년	1학년	3.96±.14	1.271	3.94±.11	.481	3.95±.11	.226
	2학년	3.97±.14		3.93±.11		3.95±.11	
	3학년	3.92±.08		3.95±.12		3.94±.09	
성별	남성	3.97±.14	.809	3.95±.12	.880	3.96±.12	.003
	여성	3.96±.14		3.93±.11		3.95±.11	
경제 상태	상	4.01±.13	.644	3.96±.13	.571	3.98±.14	.489
	중	3.96±.11		3.94±.11		3.95±.11	
	하	3.95±.10		3.94±.10		3.94±.11	
성적	상	3.98±.14	.304	3.94±.10	.004	3.96±.15	.135
	중	3.96±.14		3.94±.12		3.95±.12	
	하	3.96±.13		3.94±.08		3.95±.09	
입학 동기	적성과흥미	3.96±.13	.349	3.94±.11	.116	3.95±.11	.044
	주위사람권유	3.96±.14		3.94±.12		3.95±.12	
	취업전망	3.97±.14		3.94±.10		3.95±.11	
학과 만족도	불만	3.97±.13	.175	3.93±.09	.633	3.95±.10	.309
	보통	3.96±.14		3.94±.12		3.95±.12	
	만족	3.97±.14		3.94±.12		3.96±.12	
교우 관계	원만하지못함	3.97±.10	.316	3.93±.10	.027	3.95±.11	.131
	보통	3.97±.09		3.94±.09		3.95±.09	
	원만함	3.96±.12		3.94±.12		3.95±.12	
건강 상태	건강하지못함	3.94±.14	2.198	3.91±.15	2.690	3.92±.12	2.342
	보통	3.96±.12		3.95±.10		3.95±.09	
	건강함	3.98±.15		3.94±.11		3.96±.12	

[표 3-1]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Table 3-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특성	변수	강박증 (M±SD)	t or F	적대감 (M±SD)	t or F	공포 (M±SD)	t or F	대인예민 (M±SD)	t or F	신체화 (M±SD)	t or F
학년	1학년	1.33±.14	.215	1.32±.13	.149	1.56±.31	.596	1.29±.14	.153	1.34±.12	.591
	2학년	1.34±.14		1.32±.13		1.53±.30		1.29±.14		1.34±.12	
	3학년	1.34±.15		1.33±.14		1.58±.31		1.30±.16		1.36±.13	
성별	남성	1.33±.13	-824	1.31±.12	-841	1.56±.31	.122	1.28±.13	-845	1.34±.11	-789
	여성	1.34±.14		1.33±.13		1.55±.30		1.29±.14		1.35±.12	
경제 상태	상	1.28±.16	2.958	1.31±.14	4.084*	1.79±.29	4.063*	1.27±.16	3.905*	1.35±.12	4.976**
	중	1.33±.13		1.32±.12		1.54±.31		1.28±.13		1.34±.11	
	하	1.37±.18		1.36±.17		1.60±.30		1.33±.18		1.38±.16	
성적	상	1.33±.13	2.159	1.32±.12	1.580	1.54±.31	.907	1.28±.13	1.681	1.34±.11	1.033
	중	1.33±.14		1.32±.12		1.56±.31		1.28±.14		1.34±.11	
	하	1.37±.15		1.35±.15		1.51±.29		1.32±.16		1.36±.14	
입학 동기	적성과흥미	1.32±.13	4.069*	1.31±.12	3.423*	1.57±.31	1.011	1.28±.13	3.559*	1.34±.11	2.583
	주위사람권유	1.37±.16		1.36±.16		1.52±.28		1.31±.17		1.37±.15	
	취업전망	1.33±.13		1.32±.12		1.54±.31		1.28±.13		1.34±.11	
학과 만족	불만	1.35±.16	1.565	1.34±.15	2.750	1.57±.30	1.089	1.31±.17	2.584	1.36±.14	3.458*
	보통	1.34±.14		1.33±.13		1.57±.31		1.29±.15		1.35±.12	
	만족	1.32±.12		1.31±.10		1.53±.31		1.27±.11		1.33±.09	
교우 관계	원만하지못함	1.48±.19	22.339***	1.46±.20	27.501***	1.56±.25	2.424	1.44±.22	274.046***	1.47±.19	27.817***
	보통	1.34±.16		1.33±.15		1.60±.31		1.30±.16		1.36±.13	
	원만함	1.32±.11		1.30±.09		1.53±.31		1.27±.10		1.32±.09	
건강 상태	건강하지못함	1.39±.19	10.434***	1.38±.18	14.355***	1.61±.29	1.477	1.35±.20	13.910***	1.40±.17	15.623***
	보통	1.35±.15		1.34±.14		1.54±.30		1.31±.16		1.36±.13	
	건강함	1.31±.10		1.30±.08		1.54±.31		1.26±.09		1.32±.08	

*p<.05, **p<.01, ***p<.001

[표 3-2]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Table 3-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특징	변수	우울증 (M±SD)	t or F	불안 (M±SD)	t or F	편집증 (M±SD)	t or F	정신증 (M±SD)	t or F	정신건강 (M±SD)	t or F
학년	1학년	1.53±.27	.591	1.31±.14	.176	1.31±.14	.167	1.31±.13	.159	1.37±.11	.233
	2학년	1.51±.26		1.32±.14		1.31±.14		1.32±.13		1.36±.12	
	3학년	1.55±.27		1.32±.16		1.32±.16		1.32±.15		1.38±.13	
성별	남성	1.53±.27	.075	1.30±.13	-.843	1.30±.13	-.846	1.30±.12	-.846	1.36±.11	1.129
	여성	1.52±.27		1.32±.14		1.31±.15		1.32±.14		1.37±.12	
경제 상태	상	1.73±.25	4.288*	1.28±.16	3.409*	1.28±.17	3.578*	1.29±.15	3.738*	1.39±.12	5.576*
	중	1.51±.27		1.31±.13		1.30±.13		1.31±.12		1.36±.11	
	하	1.57±.26		1.35±.18		1.35±.19		1.35±.18		1.40±.15	
성적	상	1.51±.27	.781	1.31±.13	1.945	1.30±.13	1.858	1.31±.12	1.773	1.36±.11	.559
	중	1.53±.27		1.31±.13		1.30±.14		1.31±.13		1.36±.11	
	하	1.49±.25		1.34±.16		1.34±.16		1.34±.15		1.38±.14	
입학 동기	적성과 흥미	1.54±.27	.843	1.30±.13	3.8751*	1.30±.14	3.777*	1.30±.13	3.676*	1.36±.11	2.081
	주위 권유	1.50±.25		1.35±.16		1.35±.17		1.35±.16		1.39±.14	
	취업전망	1.52±.27		1.31±.13		1.30±.13		1.31±.12		1.36±.11	
학과 만족	불만	1.55±.27	1.293	1.33±.16	2.083	1.33±.17	2.261	1.33±.16	2.422	1.38±.14	3.284*
	보통	1.54±.27		1.32±.14		1.31±.15		1.32±.14		1.37±.12	
	만족	1.50±.27		1.30±.11		1.29±.21		1.30±.11		1.35±.10	
교우 관계	원만하지못함	1.55±.23	2.880	1.46±.21	25.112***	1.46±.22	25.889***	1.46±.21	26.509***	1.48±.19	23.969***
	보통	1.57±.27		1.32±.16		1.32±.16		1.32±.15		1.38±.13	
	원만함	1.50±.27		1.29±.10		1.29±.11		1.29±.10		1.34±.09	
건강 상태	건강하지못함	1.58±.26	1.975	1.37±.19	12.349***	1.37±.29	12.939***	1.37±.19	13.440***	1.42±.16	14.784***
	보통	1.52±.26		1.33±.15		1.33±.30		1.33±.15		1.38±.13	
	건강함	1.51±.27		1.29±.19		1.28±.31		1.29±.09		1.34±.08	

*p<.05, **p<.01, ***p<.001

표 3-3은 일반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우관계와 건강상태가 정신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와 건강상태 요인은 음의 영향을 미쳐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아져 정신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1).

학년은 정신건강과 양의 영향을 미쳐 학년이 낮을 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아져 정신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5). 일반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R²=.150로 나타났다

[표 3-3] 일반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
[Table 3-3] Influencing Factor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학년	.117	.046	.111	2.543	.011**
성별	.042	.067	.028	.634	.526
경제상태	-.031	.072	-.019	-.431	.667
성적	.048	.053	.040	.912	.362
입학동기	.041	.031	.057	1.311	.191
학과만족	-.070	.037	-.086	-1.915	.056
교우관계	-.205	.047	-.201	-4.384	.000***
건강상태	-.190	.040	-.218	-4.747	.000***

F = 10.090, R²=.150 *p<.05, **p<.01, ***p<.001

3.4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2개 하위영역과 정신건강 9개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평가적자아와 인지적자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지적자아가 높을수록 평가적자아도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평가적자아와 정신건강 9개 하위영역에서는 공포와 우울증을 제외한 7개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편집증이 동일하게 역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박증과 정신증이며, 대인예민, 적대감, 신체화 순으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지적 자아와 정신건강 9개 하위영역에서도 공포와 우울증을 제외한 7개 하위영역에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아와 역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편집증과 정신증이며, 강박증, 대인예민, 적대감, 신체화 순으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지적자아가 높을수록 공포와 우울을 제외한 정신건강 하위영역들이 낮다는 것을 나타냈다.

[표 4]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Table 4]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rrelation

변 수	평가적자아	인지적자아	자아존중감
평가적자아	1		
인지적자아	.623***	1	
자아존중감	.922***	.878***	1
강박증	-.123**	-.136**	-.143**
적대감	-.121**	-.135**	-.141**
공포	0.28	.027	.031
대인예민	-.122**	-.136**	-.142**
신체화	-.111*	-.125**	-.130**
우울증	.021	.019	.022
불안	-.124**	-.138**	-.144**
편집증	-.124**	-.137**	-.144**
정신증	-.123**	-.137**	-.143**
정신건강	-.012*	-.105**	-.115**

*p<.05, **p<.01, ***p<.001

4. 고 찰

본 조사 대상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평가적 자아는 2학년, 인지적 자아는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학년별로 비슷한 분포로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 안효자 등[21]은 간호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1학년보다 2학년이 전공 교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는 것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각 학년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후배 관계 형성과 그로 인한 역할 분담, 학년별로 점차 심화 되어가는 전공 교과목 학습을 통해서 학년별 본연의 역할이 인지적 자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효자 등[21]의 연구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자의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일반 대학생 전 학년과 간호 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와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 및 자

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성적은 상일 경우 평가적 자아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동기는 취업전망이 평가적 자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과만족도와 교우관계는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비슷한 점수분포로 유의하지 않았다. 강정희와 양승희[22], 양승희[16]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자아, 평가적 자아 점수가 높을 경우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평가적 자아와 자아존중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함영희 등[23]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득희 등[24]의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간의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한 지각상태가 좋을수록 학생 스스로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며,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영역간의 관계에서는 경제상태, 입학동기, 교우관계, 건강상태 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적대감, 공포, 대인예민,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신건강 총점 등은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상태가 좋은 학생이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보다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형춘 등[25]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으로 지각하는 학생의 정신건강이 경제수준이 상층 혹은 중층으로 지각하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최송미[26]의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이 적대감을 제외한 8개의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경제수준이 상층인 학생이 하층인 학생보다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은 학생신분으로써 대학 등록금과 용돈, 생활비에 대해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도 높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취업의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적대감, 공포, 대인예민,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박증은 경제상태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제상태가 상일수록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입학동기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불안, 편집증, 정신증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는데, 이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 취업 전망 등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주위의 권유에 의해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공포, 신체화, 우울증을 제외한 6개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 본인의 적성과 흥미, 취업 전망을 보고 입학한 경우에는 비슷한 점수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과 취업전망 등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면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결정보다는 더 양호한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정신건강의 예방적 측면에서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선택을 하였다면 부적응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 중도 탈락이나 휴학에 이르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정신건강의 증진 측면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적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과만족도와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학과에 대해 만족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경우에 정신건강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화와 정신건강 총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양승희[16], 엄미란[15]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과 만족도에 따른 정신건강은 신체화, 대인예민, 적대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과 양승희[16]와 엄미란[15]의 연구 대상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계열간의 학과만족도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교우관계에서는 우울증을 제외한 모든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한 경우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와의 접촉은 한 개인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을 얻는데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하였다[27,28]. 류진화 등[29]의 연구결과에서도 대인예민을 제외한 모든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로 이는 교우관계가 원만한 경우 정신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보다 폭넓은 동아리 활동과 전문적인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상태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영역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상층일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

적 건강상태가 하층일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공포와 우울증은 건강상태가 상층일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하위영역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박경자 등[3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정신건강의 향상과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건강을 향상시킴으로서 정신건강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들 중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교우관계, 건강상태, 학년으로 나타났다. 원만한 교우관계와 건강한 신체상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정신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저학년이 전공과목 수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학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 정신건강 하위영역의 상관관계는 공포와 우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포와 우울증을 제외한 정신건강 하위 7개영역에서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람직하게 느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불어 양호한 정신건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자에 의하면, 최미숙[3]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들에 따라 정신건강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각각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정신건강 증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보다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10,31].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우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32]. 또한, Kaplan[33]은 자아존중감이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공격적 행동, 자살, 우울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창덕[34]의 한국과 중국의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 모두에게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Rosenberg[5]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독립되어

있으며,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 대인예민성 그리고 정신증 수준이 높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Shrauger , Terbovic [35]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는가하는 것은 심리적 기능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김경연[36]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적응수준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으며, Kaluger& Kaluger[37], Mussen, Conger & Kagan [38]는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연결되며,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들과 평가적 자아, 인지적 자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상태, 입학동기, 학과만족도, 교우관계, 건강상태 등에서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경제상태는 적대감, 공포, 대인예민, 신체화, 불안, 우울증, 편집증, 정신증, 정신건강 총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입학동기는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과만족도에서는 신체화와 정신건강 총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우관계와 건강상태는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신체화, 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신건강 총점 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교우관계, 건강상태, 학년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평가적자아와 인지적자아를 포함하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는 평가적자아, 인지적자아 및 자아존중감 간에는 순상관관계를 보이고, 평가적자아, 인지적자아 및 자아존중감은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 신체화, 불안, 편집증, 정신증에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일부 지역 5개교의 일부 대학생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연구 대상자의 수를 늘리고 표집방법을 달리하여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을 완화할 수 있는 정규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1] Kim, SY, Cha, BJ, Park, JY & Kam, S,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8(2), pp. 277-291, 1995.
- [2] Suk, MH & Park, JW,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self respect & stress response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1(2), pp. 556-565, 2000.
- [3] Choi, M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Kong-ju National graduate school for Counseling Psychology, 1994.
- [4] Kim, EJ, "A Correlational study of the self-esteem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students of college of nursing", The New Medical Journal, 40(11), pp. 68-74, 1997.
- [5]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6] Chun, BJ, "A study on The self-concept", Humanities, 29, pp. 103-127, 1972.
- [7] Kim, SR, "A Study on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concepts and academic achievement",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14(1), pp. 1-43, 1992.
- [8] Troll, L. E. & Skaff, M. M., "Perceived continuity of self in very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12, pp. 162-169, 1997.
- [9] Cheng, H. & Fumham, A.,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of happiness and depress an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pp. 921-942, 2004.
- [10] Kim, HS, "Effects of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Gyeongsang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Psychology, 1996.
- [11] Hong, JW,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Ewha Women's graduate school for Health Education, 1999.
- [12] Reitzes, D.C., et al., "Preretirement Influence on Postretirement Self-Esteem", Journal of Gerontology, 51B(5), pp. 242-249, 1996.
- [13] Rim, EH, "A study on the relations of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to mental health", Sookmyung Women's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Psychology, 1997.
- [14] Lee, MH, "Effects of Human Potential Seminar on the Mental Health and Self-Concept Among Juvenile Delinqu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1), pp. 19, 2000.
- [15] Um, M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for Nursing, 1993.
- [16] Yang, S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pp. 376-390, 2001.
- [17] Choi, JH, "Perceptual Psychology", Eulyoo Publishing, 1971.
- [18] Rosenberg, M., "Society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65.
- [19] Kim, KI, Won, HT, Lee JH & Kim KY, "Standardization Study of Symptom Check List-90 in Korea I",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17(4), pp. 449-458, 1978.
- [20] Lee, HG, "External-Internal Control proneness of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n", The Study of student Life, Chungbuk University Students Life Research Center. 5, pp. 30-55, 1986.
- [21] An, HJ & Chung, BY,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pp. 224-228, 2006.
- [22] Kang, JH & Yang, SH, "A Correlation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Nursing Students", The New Medical Journal, 42(8), pp. 39-51, 1999.
- [23] Ham, YH & Kim, SN, "The study of situational anxie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in pre-clinical practice", Kyongbuk Science University journal, 8, pp. 45-54, 2001.
- [24] Kim, DH & Hwang, G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of Rural and Urban Elderly peopl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 pp. 95-12, 1998.

[25] Moon, HC & Kim, JO, "Human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of freshmen university" Seoul Institute for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31(1), pp. 55-71, 1996.

[26] Choi, SM,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llege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and China", Yonsei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1999.

[27] Erwin 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1998.

[28] Newcomb A.F. & Bagewell C.L, "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The Company They Keep. Bukowski WM, Newcomb AF, Hartup WW(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9-321, 1996.

[29] Yu, JH & Lee, MH,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2002 Freshmen", 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0, pp. 121-142, 2002.

[30] Park, GJ & Lee, CH, "An Analysis of Various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Hyosung Women's Univers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9, 1991.

[31] Choi, EY & Choi, IR,"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Self Esteem and Mental Health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5(1), pp. 63-72, 2002.

[32]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 Freeman: 1967.

[33] Kaplan, B.H., "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34] Kim. CD, Oh .GO & Kim. 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Coping Method, and Mental Health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China",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pp. 75-84, 2008.

[35] Shrauger, J. S., & Terbovic, M. S., "Self-evaluation and Assessments of performance by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pp. 564-572, 1976.

[36] Kim, GE., "The Relation of parental evaluation of children, self-esteem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ren's self-esteem",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7

[37] Kaluger, G. & Kaluger, M.F., "Human Development: The Span of Life, Second Edition",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79.

[38] Mussen, P.H., Conger, J.J., & Kagan, J., "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5thed)", New York: Harper & Row, 1979.

유 은 영(Eun-Yeong Yu)

[정회원]



- 200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병원행정학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보건) 행정, 보건학, 건강보험

윤 치 근(Chi-Keun Yoon)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석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7~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비통계 센터장
- 1990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통계, 건강보험, 보건경제

양 유 정(Yu-Jeong Y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병원행정학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의약관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통계, 건강보험